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박복영 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11. 10. 28 ~ 10. 31
3. 출장지: 프랑스 파리
4. 출장목적: ADB 국제세미나 "Policies to meet global economic challenges - Asia's perspective" 발표 및 토론 참석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2011.10.28	서울 → 파리	이동	
2011.10.29~ 10.30	파리	ADB 국제세미나 "Policies to meet global economic challenges - Asia's perspective" 발표 및 토론 참석	
2011.10.30~ 10.31	파리 → 서울	이동	

Ⅲ. 활동 내용

- 본 세미나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을 청취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콜롬비아 대학교의 The Earth Institute, 프랑스 Sciences Po 산하의 IDDRI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임.
- 세미나의 제목은 “Threats to the Global Economy: Debt, Currency, Banking and Structural Change - The Shadow G20 Workshop of the International Policy Advisory Group”임.
- 동 세미나에는 Kuroda ADB 총재, Jeffrey Sachs 콜롬비아대 교수 등 30여명의 학자와 정책연구자들이 참석하였음.
- 동 세미나에서는 유럽경제 현황, 미국경제현황, 아시아경제 현황, 글로벌 불균형, 국제금융체제, 장기 성장동력, 녹색성장 등 6개의 주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음 (별첨 세미나 프로그램 참조).
- 출장자는 글로벌 불균형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“Global rebalancing and Exchange rate flexibility revisited”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관련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음 (별첨 발표 슬라이드 참조).
- 발표 내용은, 교역대상국의 환율제도를 감안할 경우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환율제도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경상수지 조정, 즉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통계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임.
-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환율변동이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교역대상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더 빨리 균형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.
- 토론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이 단순히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 격차나 미국의 과잉소비, 중국의 과잉저축과 같은 더욱 구조적이고

근본적인 문제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.

- 또한 현재 환율문제가 미국 등에서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G20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.
- 이에 대해 출장자는, 글로벌 불균형이 구조적 원인이 기인하고 있으며 환율문제가 정치화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험적 통계에 따르면 유연한 환율제도가 그런 불균형을 빨리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.
- 따라서 원인과 무관하게 교역참가국들이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면 현재보다 글로벌 불균형이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함.